

# 이효석 소설관과 내선연애라는 소재

—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공주는\*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잃어버린 총체성 회복과 구원 구현의 글쓰기
- III. 내선연애 소재 차용과 구성의 파탄
- IV. 내선연애 서사의 유기(遺棄)와 구성의 회복
- V.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인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을 분석하고, 그의 작품 연보 위에 자칫 특이한 것으로 상정되는 이들 소설이 사실은 이효석의 작품 전체 속에서 함께 조망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았다.

이효석은 지리멸렬한 ‘산문적 현실’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가장 완벽한 상태인 ‘시(詩)의 경지’에 도달시키기 위해 어떤 ‘형식’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운명’처럼 찾아낸다. 그의 소설 창작은 일제말기라는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총체성을 찾아가는 도정(道程)이자,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현실의 제반 문제들을 작품 속에 들여와 그것에 대해 탐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내선연애 소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시국적 원인, 그리고 이효석 특유의 소설관과 결합하여 등장하게 된다.

「녹색탑」은 조선인 영민과 일본인 요코의 사랑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둘의 결합을 방해하는 하나이와 다키카와를 통해 제기되는 ‘피의 문제’는 결말에 이르러 ‘피의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봉합'을 통해 일시에 해결된다. 그러나 내용상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성공으로 귀결된 것과 대조적으로, 작품의 구성은 심각한 파탄에 빠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설 내용과 구성의 미적 완결성을 추구한 이효석의 소설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편 『녹색담』에서 제기된 피의 문제는 『아자미의 장』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과 아자미의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사랑은 실패로 귀결된다. 그러나 전자와 반대로 이 작품은 두 연인의 격리를 통해 구성의 필연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는 시국적 목적성을 담지한 내선연애라는 소재를 『아자미의 장』에 이르러 이효석이 유기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내선연애라는 소재는 삶의 총체성 구현과 인간 구원예의 목표를 소설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이효석의 소설관 속에서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주제어 : 내선연애, 소설관, 총체성, 구성, 균열, 회복, 자기 구원, 글쓰기

## I. 들어가며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승리를 계기로, 일제는 일본을 맹주로 한 동아신체제(東亞新體制)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구호는 일제가 설정한 최후 전쟁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피식민자 조선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발화된 것이었다. 결국 내선일체는 전쟁에서의 병사 확보를 위한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의 일환으로, 전쟁 수행이라는 철저한 목적성을 내포한 강령이었다.

이러한 강령의 선포는 조선의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담화 유고와 훈시로 천명된다. 미나미 지로는 “꿀도 마음도 피도 살도 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사범 영역에서 내선일체의 구현”이라 하여 씨명(氏名)의 공동화, 내선 통혼, 내선 연조(緣組)라는

3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장려에 힘입어 내선결혼은 증가 일로를 걸어, 조선에서는 1937년에 1,200쌍을 돌파하고 1941년 3월에는 전년도 조선의 내선혼(內鮮婚) 부부 137쌍이 미나미의 친필 족자를 표창으로 받는다.<sup>1)</sup>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계기로 내선인 간의 결혼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게 되었고, 일제말기 당대에 조선에 거주한 내선인 부부 또한 하나의 시대 현상으로 도출된다.

내선일체의 현실적 실현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장려된 내선결혼은 식민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민족 간의 차별을 무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비추어졌으나, 그 명백한 목적성과 내포된 모순성으로 인해 한계를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내선연애·결혼 서사를 제재로 한 작품들은 당시 일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적인 일상이 곧 전쟁 수행이라는 시국의 중대사로 연결되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동안 이를 제재로 한 작품들은 그 속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연구 동향이 바뀌게 되었고, 작품 속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는 작가들의 정치의식이 작품 해석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다. 실제로 내선연애·결혼 서사를 취급한 대다수의 작품들이 탈식민주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내선인 애정 서사의 부적합성과 실패 등은 내선일체의 모순성과 작가 의식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된다. 이로써 소위 ‘암흑기’로 통칭되던 일제말기를 살아간 당대 작가들의 작품 색채가 새로운 시각 속에서 보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또 한편 탈식민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식민주의를 초월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개별 작가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로 작품과 작가 의식을

1) 오구마 에이지 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p.313.

직선적으로 연결시켜 작품 분석을 피했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지닌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선연애 서사들은 이효석의 작품 전반을 함께 펼치고 논의할 때 특이한 부류로 상정되는 것인데, 이는 그가 창작 초기의 경향 색채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제재를 작품 속으로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3년 발표된 『돈(豚)』(『조선문학(朝鮮文學)』, 1933. 10)을 시작으로 향토적 서정의 세계와 성(性)의 세계로 심취하여 간 그의 작품 연보 위에, 시국적 소재로 인식된 내선연애 서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칫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내선연애 서사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자못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작품들 역시 이효석 작품세계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탈식민주의의 틀 안에서 피식민자 작가 의식의 적극적 발현으로 분석되었던<sup>2)</sup>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편 이효석의 내선연애 작품을 다룬 논의들은 본고가 텍스트로 삼은 두 작품 중 한 작품만을 취급하거나 혹은 함께 다루는 일이 있어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두 소설의 결말이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실 두 편의 소설은 연결된 하나의 서사로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 진행될 작업은 탈식민주의의 공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 무게를 잠시 벗어두고 다시 이효석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2) 조윤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애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글』 제41집, 우리말글학회, 2007.; 최주한, 「내선결혼소설의 낭만적 형식과 식민지적 무의식」, 『어문연구』 제14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 서양고전의 차용과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고는 내선연애라는 특이한 소재로 주목받았던 『녹색탑(綠の搭)』(『국민신보(國民新報)』, 1940. 1. 7 - 4. 28)과 『아자미의 장(薊の章)』(『국민문학(國民文學)』, 1941. 11)을 이효석의 작품 전체 속에서 조망하고 그 위치를 재조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내선연애’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모순과 그 붕괴과정을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을 통해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들 소설을 이효석 문학의 연속선상에 위치지우는 작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 II. 잃어버린 총체성 회복과 구원 구현의 글쓰기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sup>3)</sup>,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시를 읊은 작가”<sup>4)</sup>라는 별명은 이효석 문학 세계의 기반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당대 문인들에게 시적인 소설가로 불릴 만큼, 그의 소설세계는 그야말로 ‘시적인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산문』(『조광(朝光)』, 1936. 7)에서 주인공 문오는 사람의 거리를 “일종의 지옥 아닌 수라장”<sup>5)</sup>으로 인식한다. “쓰레기통” 같은 “어지러운 거리”는 그의 정신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 아무 의미도 던져주지 않는다.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산문으로 들어”<sup>6)</sup>찬 정리되지 않은 혼돈이다. 이효

3) 김동리, 「산문과 반산문」,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 8』, 창미사, 2003, p.105.(이하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은 『전집』으로 약칭.)

4) 유진오, 「작가 이효석론」, 위의 책, p.97.

5) 이효석, 「인간 산문」, 『전집 2』, p.72.

6) 위의 글, p.85.

석은 문오를 내세워 그의 세계관을 명시하는데, 이것은 바로 ‘산문적 세계에 대한 환멸’이다.

산문적 세계에 대한 불만과 회의는 맑시즘에 의거한 카프 진영에서 내세운 ‘산문정신(散文精神)’과 대치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효석을 카프 진영의 창작이념에 동조한 ‘동반자 작가’라 평한 기왕의 평가들은 재고되어야 한다.<sup>7)</sup> 이효석에게 1920 - 30년대 조선 문단을 휩쓴 경향적 색채는 현실에서 인지한 소재 중 하나에 불과했다. “씨는 예술가이기는 해도 사상가는 아니다. 예술가 역시 시대를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씨는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취재는 했지만 그 제재(題材)는 결국 제재에서 벗어났을 뿐 이것을 발효시킨 것은 씨 자신의 예술적 감각 그것이었다.”<sup>8)</sup> 고 밝힌 유진오의 회상기에서 이효석의 소재 참작(參酌)과 그 구성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카프 진영에서 ‘사상성’에 매달렸던 것과 대조된다. 이효석은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소재들을 취재하여 소설 속에 옮겼지만, 그가 선택한 소재가 곧바로 그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당대 작가들과 또 다른 이효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7) 1930년 11월 제2회 국제프롤레타리아작가회의 이후 활발히 논의된 동반자 작가 개념은 카프 진영의 조직중심주의에 발맞추어 전개된 것이다. 이 개념 설정은 경향적 색채를 띤 작품들을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분류하여 세력을 증대시키고자 한 사회주의 진영의 명백한 의도를 담지한 것이었다. 이때 ‘동반자 작가’라는 명칭은 동반자 작가로 분류된 작가들이 자칭한 것이 아니라, 박영희 등의 카프 급진론자들에 의해 ‘호명’된 것이었다. 실제로 유진오가 카프 진영의 세력 포섭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효석 역시 카프 세력의 중핵이 되었던 ‘산문정신’에 피로감을 내비친다. 그리고 이들 작품 역시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고 온전한 경향 소설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 1936년 발표된 『인간산문』은 카프 해체 후 ‘이념성’의 약력(握力)에서 벗어난 이효석의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효석의 초기 경향 색채 소설들은 카프 이념에 근원적으로 동조하여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마르크스주의라는 당대 종교적 경외의 대상을 소재로 참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유진오, 앞의 글, p.98.

이효석은 선을 그어 소재들을 재단(裁斷)하지 않았다. 그에게 소설 창작은 삶의 제반 문제들을 글로 옮겨 고심해 보는 일종의 ‘여과 작업’이기도 했다. 이효석에게 ‘소설’이라는 틀은 그의 ‘운명’이 찾아낸 하나의 ‘형식(form)’이었다.

무릇 글쓰는 행위는 세계를 어떤 운명적 관계의 상징 속에서 표현한다. **운명의 문제가 어디서나 형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형식과 운명의 이러한 동일성과 공존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 요소는 다른 요소없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분리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추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9)</sup>(강조 - 인용자)

루카치는 일찍이 운명의 문제가 형식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작가의 작품이란 작가가 그 자신이 통찰한 근원적인 운명을 문자적 체계로 옮겨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효석의 소설 창작은 이러한 루카치 이론의 연결선상에서 짚어볼 가치가 있다.

이효석은 문학이 ‘시(詩)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라 생각했다. 여기에서 ‘시의 경지’란 현실 세계와 작품의 세계가 완전한 ‘총체성(totality)’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제말기의 현실에서 ‘총체성’이란 이미 잃어버린 과거의 것이었고, 당연히 작품 자체가 곧바로 시의 경지에 이르는 일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총체성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효석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만난다. 소설은 삶의 외연적 총체성이 더 이상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고 의미의 삶 내재성이 문제가 되어버린, 그렇지만 총체성에의 의향은 갖고 있는 시

9)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심희섭 역, 『에세이의 본질과 형식』, 『영혼과 형식』, 심설당, 1988, p.16.

대의 서사시<sup>10)</sup>이다. 또한 소설은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 구축하려고 추구<sup>11)</sup>하는 형식이다. 이미 분리되어버린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효석은 부단한 부단침의 과정을 반복한다. 시로써는 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운명적으로 감지한 그는 초기의 시 창작에서 몸을 돌려 소설 창작으로 나아간다.

이효석에게 소설 창작은 총체성을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규합하는 형식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형식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효석은 어린 시절 친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수학, 대학 졸업 후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지속한다. 경성제대 법학부 영문학과에 재학하던 시절에 애독한 썩(Synge)과 예이츠(Yeats) 같은 아일랜드 작가의 작품들 역시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또한 결혼 후에는 아들에 이어 아내를 잃는 비극을 겪는다. 태생부터 지니고 있던 병약한 기질과 더불어 특수한 삶의 굴곡들은 그를 현실에 대한 회의와 심미적 세계에의 탐험에 심취케 하는 요인이 된다.<sup>12)</sup> 그의 소설 속에서 하나의 ‘완결’을 이루기 위해 분투(奮鬪)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소설의 세계에서 현실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안정감을 충족하려 한 이효석의 바람은, 소설 내용뿐 아니라 소설 구성의 문제까지 미적 잣대를 통해 향상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훌륭한 표현인 동시에 진실에 육박하는 — 그곳에 문학의 참된 길이 있지 않을까”<sup>13)</sup>, “문학의 수준을 말할 때에

10) 게오르크 루카치 저,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4, p.62.

11) 위의 책, p.68.

12) 이효석의 생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상욱, 『이효석 - 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3, pp.217-302 참고.

13) 이효석, 『낭만·리얼 중간의 길』, 『전집 6』, p.220.

척도는 더 많이 기술에 걸려 있으니 수준의 저열은 기술의 치졸을 의미한다.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은 들어가는 그 첫 대문이자 마지막 대문인 까닭이다. 다른 학문에 있어서의 표현 문제와 문학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동일애 논할 바 아닌 소이가 여기에 있다. 문학 이전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끝까지 문학과 겨뤄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표현이다. 문학에 일정한 체모와 면목을 주는 것은 표현이니 표현이 성역成域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문학의 체모를 갖추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떳떳한 문학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sup>14)</sup>이라 주장한 이효석에게, 당대 문인들로부터 이효석 자신을 비판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표현과 기교의 문제<sup>15)</sup>는 사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산문적 현실에서 세상과 이효석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설 창작은 내용과 표현 모두 완벽한 ‘미적 완전체’를 지향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효석의 창작관은 그의 ‘단편소설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sup>16)</sup>

14) 이효석, 『기교 문제』, 위의 책, pp.222 - 223.

15) “이효석李孝石 씨는 이러한 중견 문단의 초조와 혼돈에서 분명히 자유로운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씨가 현재의 중견 작가 중 가장 편의便宜한 지점에서 있음은 사실이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에 풍부하다 할 수 있다. <…> 씨의 단편은 우리 문단에서 단편소설을 의식하고 쓰는 희귀한 작가의 작품이다. 내용의 공박空薄을 책責하기엔 너무나 탁마琢磨된 형식!”

입화는 문단의 1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전환기의 ‘초조’와 ‘혼돈’에서 자유로운 이효석의 창작을 비판하고 있다. 이효석의 소설을 탁마된 형식의 결과로 보는 입화의 말에는 내용의 공박(空薄)을 탓하고 싶은 본심이 숨겨져 있다.(입화 저·입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p.260.)

16) 이효석의 소설은 안톤 체홉 같은 20세기 단편소설 작가들이 추구한 특징 속에서 형성된다. 즉 19세기적 작위적 플롯과 극적인 사건, 충격적 결말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작품의 세계로 옮긴 것이다. 그가 체홉 등을 단편작가의 대표적 사례

속도와 변진變轉 속에서 진을 발견하고 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라면 단편소설의 감각은 제물에 그런 성격과는 일치의 운명에 놓여 있다. **진실이라는 것은 장황한 설명으로 보아도 도리어 촌구寸句로 더욱 여실히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시적 감각도 또한 지연된 시간에서 보아도 순간적 긴장에서 포착되는 것이 아닐까.** 현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긴장 속에서 생명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에 단편의 형식이 영합됨은 자연한 일이다. **자나깨나 진실의 파악을 명념하고 그 전달을 사명으로 여기는 작가가 직결적인 단편의 형식에 치념함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sup>17)</sup>(강조 - 인용자)

평론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효석 단편소설관은 그 특유의 “‘성(性)’과 ‘비위’<sup>18)</sup>에 의한 것으로, 당대 여타 작가들의 단편소설관과는 차이가 있다.

식민지기 한국의 단편소설은 서사를 길게 이어가야 하는 장편소설이 창작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도출되었다. 임화와 같은 비평가들은 일종의 성공한 장편인 이기영의 『고향』(『조선일보(朝鮮日報)』, 1933. 11 - 1934. 9)와 같은 작품들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문단의 상황에 비통해 하였다. 이들에게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되어야 할 ‘차선택’으로 인식되었다. 이효석의 단편소설관은 문단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표현과 기교에 집중한 탓에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단편소설관은 비단 단편소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로 든 점과 20세기 단편소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후술할 내선연애 소설의 구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단편소설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2004, pp.108-109 참조.

17) 이효석, 『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相貌 - 진실의 탐구와 시의 경지』, 앞의 책(『전집 6』), pp.232-233.

18) 이효석, 『낭만·리얼 중간의 길』, 위의 책, p.221.

물론 소설의 목표는 다만 진실의 전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의 표현을 수단으로 궁극에 있어서는 미의식을 환기시켜 시의 경지에 도달함이 소설의 최고 표지요, 이상인 것이다.** 최고 표지가 시의 경지인 점에 있어서 소설의 목표는 물론 시의 목표와 동일하다. **시는 직접적으로 ‘미’를 통해서 시에 도달함에 반하여 소설은 ‘진’을 통해서 시에 도달하려는 것일 뿐이다.** 소설의 최고 목표를 일률로 ‘진’에만 두는 것은 참된 리얼리스트의 태도가 아니며 예술의 본질의 인식을 스스로 그르치는 것이다. 진실을 추구해서 그 뒤에 높은 시의 창조를 생각하는 곳에 작가의 제2단의 자각이 서야 할 것은 물론이다.<sup>19)</sup>(강조 - 인용자)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효석의 단편소설관은 단편과 장편이라는 장단(長短)의 형식을 뛰어넘는, 소설 자체에 대한 지론(持論)이었다. 그가 평론들을 통해 드러낸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 그의 소설관이자 세계관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산문적 현실을 시적 무결성(無缺性)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경향 색채의 소설이 구성의 꺾진성을 잃었던 사례와 이후 서정적 색채의 소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한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940년대 초 모습을 드러낸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 역시 현실의 제반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고구(考究)하고자 한 그의 소설관과 시국적 영향으로 소재의 빈곤<sup>20)</sup>에 몰리게 된 상황 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로 진입한 시국 속에서 작품의 소재는 지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고 검열이 강화되면서 작가들은 발

19) 이효석, 『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 - 진실의 탐구와 시의 경지』, 위의 책, p.234.

20) 논설 「소재의 빈곤」(『조선문학』, 1936. 5)과 좌담회 ‘현대작가 창작 고심 합담회’(『사해공론(四海公論)』, 1937. 1) 등을 통해 이효석이 소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표지면과 그 내용을 한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효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숭실전문학교가 폐교된 1938년을 전후하여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소위 '내선일체' 정책을 강화하면서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고 있었다. 이효석은 수년간 재직하던 학교의 폐교로 인해 단순히 교수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말 대신에 일어로 작품을 쓰라는 압력까지 받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도움이 되는 소위 '신체제'의 글을 쓰라는 강한 요구까지 받고 있었다.<sup>21)</sup>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길은 현실 속에서 제재는 가져오되, 자신만의 방법으로 창작을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결국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은 무시할 수 없는 시국적 압력과 소재의 빈곤, 그리고 이효석 특유의 소설관이 융합되어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Ⅲ. 내선연애 소재 차용과 구성의 파탄

일제말기, 이효석의 눈에 포착된 것은 바로 조선 땅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이었다.<sup>22)</sup> 소재의 궁핍에 시달리고 있던 그에게 일본인 여성은 화초와 같은 완상의 대상으로 포착되었고, 이로써 작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sup>23)</sup>

21) 이상욱, 앞의 책, p.279.

22) 실제로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재조 일본인(在朝日本人)의 수가 7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12만 명 가량이 경성에 거주하고 있었다.(이규수,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 - 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125집, 역사교육연구회, 2013, p.48, p.57 참조) 재조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잠시 머문 방한 일본인(訪韓日本人)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화초, 조선 여성에서 나아가 일본인 여성으로 확장된 이효석의 심미안(審美眼)은 서울로 떠난 은실(銀實)과 일본에서 건너 온 테이코(禎子)가 서로 대체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소복과 청자」(『文藝』, 발표연도 미상), 「은빛 송어」(『外地評論』, 1939. 2)의 두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23) 「은빛 송어」의 테이코가 등장하기 전, 일본인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다. 소설 「오리온과 능금」(『삼천리(三千里)』, 1932. 3), 수필 「이등변삼각형의 경우」(『월간매신(月刊每申)』, 1934. 9), 「두 처녀상」(『월간매신』, 1934. 9)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일본인 여성은 서사에서 주요 인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리온과 능금」에서 나오미는 ‘피를 달리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일본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나’와의 내선연애 상대로 집중되기보다 작품이 발표될 당시 동반자 작가라는 칭호를 부담스러워한 이효석의 내적 태도와 「돈」으로의 경도과정을 나타내주는 표지에 그친다. “동지”라는 느낌보다 ‘여자’라는 느낌을 주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필 「이등변삼각형의 경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여관의 여급인 쓰야꼬와 하루코는 ‘나’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지된 연애편경’과 ‘미적지근한 관계’로 남는다. 우울온천에서의 한때의 삼각관계를 회상하는 이효석의 태도는 앞으로의 창작 소재로 로맨스 사건을 다룰 것을 다짐하는 데에서 끝나고 있다. 「두 처녀상」 역시 ‘M’이라 지칭되는 마미꼬와 ‘K’로 지칭되는 김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미꼬는 김과 함께 ‘나’의 추억 속에서 회상되는 여자 중 하나로 남을 뿐이다.

이효석은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인 여성을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스케치 정도로 끝난다. 이효석이 작품의 주요 인물로 일본인 여성을 등장시킨 것은 「은빛 송어」부터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연애 서사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녹색탐」이 최초라 할 수 있다.

24) 「소복과 청자」는 발표연도가 밝혀지지 않은 연도 미상의 작품이다. 필자는 이 작품을 1939년 2월에 발표된 「은빛 송어」보다 앞서 발표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필자는 이효석이 본격적인 내선연애 소설인 「녹색탐」에 들어서기 전, 내선연애 소설로 넘어오는 「과도기」를 겪었다고 상정해 보았다.(경향 색채의 소설을 쓸 때 ‘서론’격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여러 편 남긴 것과 같이) 그는 이 과정 중에 「소복과 청자」의 은실의 자리에 「은빛 송어」의 테이코를 대체시킨 것이 아닐까. 이러한 가능성은 앞서 설명한 「오리온과 능금」, 「이등변삼각형의 경우」, 「두 처녀상」과 「은빛 송어」가 5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소복과 청자」와 「은빛 송어」가 주인공의 국적이 다른 점만 빼고 구성이 겹친다는 점 등을 보아 유추한 결과이다.

「소복과 청자」의 은실과 「은빛 송어」의 테이코는 모두 다방에 모인 남자 무리의 「완상」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녀들은 모두 「미의 현현(顯現)」으로 형상화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들을 독점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들이 절대적인 「미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백씨 같은 사람이 독점을 하다니 될 말이야. 우리 모두의 은실인데. 이런 데 있으니 사실 우리도 늘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가. **아름다움의 표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야.** 그 여자의 주장이 옳은 거야.”<sup>25)</sup>(강조 - 인용자)

이 작품들에서 이효석은 미의 권능(權能)에 대해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미(美)」는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될 수 없는 보편적인 마력을 지닌 「절대 관념」으로 승격(昇格)된다. 그에게 「미의 위력」은 천하고 추잡한 세상조차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력을 지닌 것으로, 이는 지독한 환멸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구조적 장치이기도 했다.<sup>26)</sup>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녹색탑」의

---

만약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조선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소복과 청자」 이후 일본인 여성을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은빛 송어」 - 「녹색탑」 - 「봄 의상」 - 「아자미의 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을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소복과 청자」의 명확한 연도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생각은 일단은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25) 이효석, 「소복과 청자」, 『전집 3』, p.97.

26) 「문학의 지성이 아니라 문학의 심미역(審美役)(문학의 지성은 곧 심미역으로도 통하거니와)이야말로 환멸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높은 방법인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천하고 추잡해도 문학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력을 가졌다.(강조 - 인용자), (이효석, 「문학 진폭 옹호의 변」, 앞의 책(『전집 6』), p.251.)

은실을 모델로 삼아 초상화를 그리는 「윤씨」, 테이코를 모델로 삼아 초상화를 그리는 「최」가 모두 미를 대상으로 하는 「화가」라는 점은 이 여성들을 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선을 방증한다. 이는 또한 후술할 「봄 의상」의 「도재육」의 그것에서도 그대

내선연애 서사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은 1940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연재된 『녹색탑』과 1941년 11월에 발표된 『아자미의 장』 두 편이다. 『아자미의 장』은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 중 두 번째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세부적인 인물 묘사와 이야기의 결말이 『녹색탑』의 그것과 각각 대조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년 남짓한 시간동안 그가 두 작품에 걸쳐 형상화한 내선연인의 모습을 통해, 전시체제기의 시극적 중대성을 띠고 있던 내선일체 담론이 개별자의 현실로 들어오면서 노출된 여러 국면을 읽을 수 있다. 필자는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을 연속하는 하나의 서사로 이해한다. 이는 두 소설의 연속과 단절을 살필 때 이효석이 당대에 목도한 내선일체의 모순과 현실적 파탄과정을 그 속에서 적확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탑』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흘러간다. 영민(英民)의 강사 임용 이야기와 영민과 요코(洋子)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줄기는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자가 후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영민과 요코의 사랑 이야기는 성공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내선인 간의 연애 서사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이상적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조선인 남성 영민은 경성제대 수재로서 암묵적으로 문학부 강사 자리에 내정되어 있는 미래가 밝은 인물이고, 일본인 여성 요코는 일종의 대기업이자 엘리트집단이었던 만철(滿鐵)<sup>27)</sup>에 근무하던 아버지를 둔 중산층 가정의 숙녀이다. 이 두 내선인의 사랑은 요코의 오빠 마키(牧)와 영민의 주임교수 시마(島) 교수 등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에 힘입어 전개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요코를 짝사랑한 하나이(花井)의 계략으로 위기

---

로 포착된다.

27) 고바야시 히데오 저, 임성모 역, 『만철』, 산치림, 2004.

를 맞게 된다. 그가 둘의 사랑을 훼방 놓은 원인은 바로 두 사람의 ‘피의 거리’에 있다. 하나이를 통해 제기된 ‘피의 거리’는 요코의 외숙인 다키카와(瀧川)를 방해자로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는 만류하는 마키와 그의 어머니를 뒤로 하고 요코를 데리고 도쿄로 떠나버린다. 그는 요코의 혼담을 ‘조선에서 조선인 영민과 진행’시키기보다 ‘일본 내지에서 일본인 남성과 진행’시키고자 한다. 결국 그가 요코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쿄로 데려가는 것은 조카인 요코를 귀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선인 간의 사랑이 ‘부적합(不適合)’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처사였다.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하나이와 다키카와의 태도는 당시 인종 혼합을 통해 야기될 ‘오염’을 두려워 한 일본인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효석이 『녹색탑』을 발표한 1940년대 전후로, 식민지 통치이념으로 조선총독부의 혼합민족론과 일본 후생성의 순혈론이 팽팽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에의 동원을 목적으로 황민화정책 시기에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할 명분과 방법으로 ‘잡혼’을 주장한 반면, 일본 후생성은 중일전쟁 이후 동원된 노동력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혹은 강제 연행 등으로 인해 대량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유입되어 통혼이 이루어지자 일본인의 피를 오염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혈론을 내세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 내세운 혼혈민족론 역시 강령으로 내세운 내선 일체가 권리와 의무의 평등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민족의 말소였지 차별의 해소는 아니었다. 내선일체를 부르짖었던 미나미지로도 조선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추밀원회의에서는 조선민족은 이민족이기 때문에 동렬에서 다룰 수 없다고 말한다.<sup>28)</sup> 결국 표면적으로는 대립되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후생성의 길항관계도 기본적으로 식민지인인 조선

인에 대한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두 내선남녀의 합일에 대한 하나이와 다키카와의 거부 증세는 이와 같은 일본 민족의 입장을 방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이와 다키카와에 의해 제기된 피의 문제는 요코의 패혈증(敗血症) 증상이 악화되어 수혈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전후 과정 없이 ‘일시에’ 해결된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문제로 지목되었던 ‘피’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다. 요코의 혈액형은 B형으로, 가족인 마키나 다키카와는 물론이고 같은 일본인인 하나이와도 맞지 않는데, 오히려 조선인인 영민의 혈액형이 요코와 같은 B형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요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받게 된다.<sup>28)</sup>

‘피와 피’의 완전한 일체(一體)의 과정을 목도한 후, 영민과 요코의 만남을 가장 완고하게 반대했던 외숙 다키카와를 비롯하여 마키와 하나이 역시 이 두 남녀의 합일을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 피와 피의 결합은 내선인 간의 차이를 무화(無化)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이미 피

28) 오구마 에이지 저, 조현설 역, 앞의 책, pp.306-351 참조.

29) 윤대석은 ‘피’라는 일상적·이데올로기적 담론과 ‘혈액’이라는 과학적·학문적 담론 사이에 일종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녹색탑』에서 이효석이 당대의 최신과학이었던 혈액형의 논리를 통해 ‘피’의 차이를 ‘혈액형’의 동일성으로 무화시켰다고 말한다. 요코의 피와 영민의 피가 다르다고 하는 순혈주의의 ‘피’ 담론이 과학적 ‘혈액’의 담론에 의해 전복된 것이다. 이효석이 주장하는 혈액형의 논리는 보편적 과학으로서 영민이 종사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으로 상징되는 학문 세계의 논리와 일치하며 이 점에서 『녹색탑』의 두 서사는 결국 학문적 보편성과 객관성을 통해 지역성과 특수성으로서의 민족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윤대석, 『1930년대 ‘피[血]’의 담론과 일본어 소설, 『우리말글』 제51집, 우리말글학회, 2011, pp.289-293 참조.)

이효석이 실제로 경성제대 법문학부 영문학과에 재학·졸업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는 사실과 당대 신문·잡지에 혈액형에 대한 담론들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녹색탑』에서 영민과 요코의 연애 서사를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계기인 이 혈액형의 일치는, 당시 유행했던 혈액형 담론을 그가 작품에 차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의 결혼을 마친 두 사람<sup>30)</sup> 역시 그간의 의심을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의 몸으로 거듭난다. 이들의 결실은 조선과 일본의 경계인 현해탄을 급행선(急行船)으로 가로지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이 성공으로 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의 구성이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엮여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구성상의 파탄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포착된다. 첫 번째는 이효석의 소설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이 애정 서사의 중심으로 ‘역류(逆流)’하는 점에 있고, 두 번째는 두 남녀의 사랑의 해결책이 결말에 이르러 ‘일시에’ 그리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요코의 음독(飲毒) 시도 후 영민은 일종의 도피행으로 고향에 내려간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온천으로 은신처를 옮긴 그는, 막 육조에서 꺼낸 자신의 몸을 감상한다.

몸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며 육체의 사상에 잠기는 일은 더 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이 무섭게 자기본위적인 생각 방식은 대체 어디서 터득했는지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다만 황홀하여 나와 내 몸을 보며 심취해 있을 뿐이었다.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홀륭한 것이다. 이 홀륭한 한 개의 절대를 요코와 소희가 원하고 있다.

**그 여자들의 일방적인 희망이다. 그것에 옹하거나 옹하지 않거나, 주거나 안 주거나는 이쪽의 마음대로다. 신이 준 단 한 개의 특전인 것이다. 그렇다. 사랑의 특전은 누구에게도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sup>31)</sup>(강조 - 인용자)

『소복과 청자』에서 다방의 남자들로 분(扮)하여 발화한 이효석의 심미안적 사고(思考)가 여기에서도 표출된다. 이때 서술자의 시선은 미의 유일

30) 이효석, 『녹색탑』, 『전집 4』, p.411.

31) 위의 글, pp.349-350.

무이(唯一無二)한 완전성(完全性)에 고정된다. 『화춘의장(花春意匠)』(『조선일보』, 1937. 5) 등에서 밝힌 이효석의 미학관은 영민이 애정 문제나 지위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맞이한 순간에도 노출된다.

온전하게 존재하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영민은 지고지미(至高至美)한 육체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이때 그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요코와의 사랑이나 학교 강사 임용 따위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 뛰어넘는 ‘보편적인 미의 위력’이다. 옆방 욕실에서 나온 소희의 육체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 번 미의 힘에 굴복한다. 소희의 육체는 “하나의 경이”이자 “절대”<sup>32)</sup>로 표상되는데, 이때 소희를 바라보는 영민의 시선은 이효석이 지닌 심미안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소희는 일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복과 청자』의 은실과 『은빛 송어』의 테이코와 같은 ‘절대적인 미적 대상’이 된다.

한편 요코의 연적(戀敵)으로 설정되었던 소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개성적 인물로 변하여 작품 속에 등장하게 된다. 소희에 대한 형상화는 점차 그 비중이 커져 작품의 중심축으로 ‘역류(逆流)’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희에의 집중은 점차 영민과 요코의 연애 서사와 갈라지게 되면서 구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역류 현상은 『녹색탑』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효석의 미완성 일본 장편<sup>33)</sup>(이하 『미완』이라 약칭함)에서도 동일하게

32) 위의 글, p.351.

33) 이는 2011년 9월 10일, ‘이효석의 유고작(미완성 일본어 장편 소설) 조명’을 주제로 이효석문학관에서 개최된 가산문학심포지엄의 발표자료집에 실린 장순하 시조시인의 번역본을 참조하였다.

이 작품은 원고의 첫 장이 유실되고 5장까지만 남겨져 있어 제목과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인공인 고승인의 아내가 일본인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룬 내선연애 소설과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내선연애 소설 속 구성 문제

포착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고승인(高勝仁)은 조선 총독에게 친필 죽자를 상으로 받을 만큼 시국적인 활동에 열심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고 주변 상황들에 ‘침범’당하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고승인이 국책 사업에 열심을 보이면서도 돌아서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모습, 시국적 목적을 떠나 일본인 처(妻) 이요시(倭善)와의 순수한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 동생 고승서(高勝西)의 아내인 러시아 여인 일리나의 아름다움에 과도하게 심취하는 모습 등 『녹색탑』의 구성이 영민과 요코의 사랑에 집중되지 못하고 개별로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완』 역시 구성상의 파탄이 심각하게 목도(目睹)된다.

물론 이 작품이 5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되었기에 전체 내용을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남아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미완』 역시 『녹색탑』의 구성상 파탄을 고스란히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승인이 제수(弟嫂) 일리나의 화려한 외모에 감격하여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모습은 영민이 외부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잊고 자신과 사회의 육체에 감격하여 찬미하는 것과 그 모습이 겹친다. 영민이 일종의 “도피행”으로 온천을 찾은 것처럼, 이효석 역시 작품 속에서 일종의 ‘도피행’으로 미의 절대성에 침잠해 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작품 구성상 파탄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 문제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해결방법을 꼽을 수 있다. 영민과 요코의 애정 문제는 요코의 병세가 악화되어 수혈이 불가피하게 된 ‘극적인 순간’, ‘일시에’ 그리고 ‘단

---

와 관련하여 간략히 분석되었지만,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고도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로 주인공 형상 문제가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조선인 고승인으로, 작품 속의 행적과 그의 창씨명이 현영섭(玄永燮)과 매우 유사해 현영섭을 모델로 한 모델 소설이라 칭할 수 있다. 작중 고승인의 창씨명은 아마노 가쓰토(天野勝人), 현영섭의 창씨명은 아마노 미치오(天野道夫)로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범위를 뛰어넘기에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번에’ 해결된다. 혈액형이라는 보편 담론으로, 좁혀지지 않았던 ‘피의 거리’를 단번에 봉합해버린 것이다. 이는 19세기적 인공성에서 탈피한 체홉 등을 20세기 단편소설의 대표 작가로 칭하여 그들의 창작관을 따르려 한 이효석의 다짐과 위배(違背)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제시된 이러한 비약은 작품 구성의 측면에 있어 가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의 꺾인함을 작품 창작의 기본 태도로 여긴 이효석의 소설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구성상 과탄에 이른 이유는 내선연애라는 소재가 이효석의 창작관과 합치될 수 없는 ‘이물적(異物的)’인 존재였다는 사실에 있다.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결합이라는 서사의 플롯은, 현실적인 제재를 들여오되 산문적인 현실의 무게는 피하고자 한 이효석의 창작 방침과 부합할 수 없었다.<sup>34)</sup>

내선연애 서사의 무게는 러시아 여성과의 연애·결혼 이야기를 담은 『벽공무한(碧空無限)』(『매일신보(每日新報)』에 『창공(蒼空)』이라는 제목으로 194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48회 연재)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진다. 조선인 남성 천일마(千一馬)와 러시아 여성 나아자의 사랑은 이효석이 늘 강조했던 ‘구성’의 꺾인성’에 근거하여 순탄히 진행된다. 『녹색탑』의 영민과 요코의 결합 과정이 미의식의 과도한 분출과 비약적인 결말 도출로 구성의 치밀함이 훼손(毀破)된 것에 반해, 『벽공무한』의 일마와 나아자의 결합은 주변인물과 사건이 두 연인의 연애 서사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34) ‘작가가 자신의 문학의 지향을 말하고 작품을 해설함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창작의 직접 동기는 항상 더 많이 생명에의 애착과 생활에의 흥미에 있는 것이지 목적의식 달성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쓰는 작가라 하더라도 실제 창작의 흥미는 그 법칙의 교전살포(敎傳撒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변화무쌍한 실생활의 재현에 있는 까닭이다.’(강조 - 인용자)(이효석,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 앞의 책(『전집 6』), p.225.)

내용뿐 아니라 구성까지도 일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에 섰던 이효석<sup>35)</sup>이 러시아 여성 나아자는 애정의 대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인 여성 요코는 결국엔 수용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의 차이는 결국 ‘내선연애’라는 소재의 무게와 정치적 모순성에 있었다.

『녹색탑』에서 도출된 ‘합일’은 산문적 현실에 환멸을 느껴 삶의 미학화를 추구한 이효석이라는 작가를 내선일체라는 모순적 강령이 준비한 현실에 눈 뜨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녹색탑』으로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표된 『아자미의 장』은 『녹색탑』의 일종의 후일담(後日譚)이다.

#### IV. 내선연애 서사의 유기(遺棄)와 구성의 회복

『녹색탑』의 발표 후, 이효석은 다시 한 번 일본인 여성을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이 작품이 바로 『봄 의상』(『週刊朝日』, 1941. 5)이다.

『녹색탑』에서 일본인 여성 요코가 연애 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과 달리, 『봄 의상』에서 미호꼬는 다시 완상의 대상으로 ‘후퇴’한다. 주연과 서로 옷을 바꿔 입어 한복으로 치장한 미호꼬의 모습을 보고 도재욱은 “얼떨떨할 만큼 불가사의한 아름다움”<sup>36)</sup>을 느낀다.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휘감겨 있는 동안 세 사람은 백화점 갤러리의 전람회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미호꼬는 전시된 동자상(童子像) 앞에서 자신의 출신을 밝힌다. 그녀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다.

35) 이효석은 『조광』에서 1937년 4월 진행된 설문에 응한다. ‘애정’ 설문의 다섯 번째 문항이었던 국제결혼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다만 국제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반대할 것 못 되겠지요.’라고 답한다.(위의 책, p.317.)

36) 이효석, 『봄 의상』, 앞의 책(『전집 3』), p.90.

『녹색탑』에서 내선연애의 부적합성을 깨달은 이효석은 일본인 여성을 다시 ‘완상의 대상’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봄 의상』의 미호꼬를 통해 시행한다. 그녀가 내선인의 혼혈아로 설정된 점 또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이 다른 두 연인의 결합을 폭력적 비약으로 봉합한 직후, 이효석은 완전한 일본인이 아닌, ‘혼혈아’인 미호꼬를 설정함으로써만 일본인 여성을 이전과 같은 완상의 대상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 이효석의 마지막 내선연애 소설인 『아자미의 장』이 발표된다.

『녹색탑』에서 영민과 요코가 이상적인 배경의 조력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효석은 『아자미의 장』에서 현과 아자미를 철저하게 ‘현실적인 배경’에 안착(安着)시킨다. ‘시국’적 원인으로 인해 다니던 신문사가 폐간되어 무직자(無職者)의 신세로 전락한 조선인 남성 현(顯)과 술집 여급으로 근무하는 일본인 여성 아자미(阿佐美)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된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배경 속에서 지위상의 차이 역시 내재한다.

술자리에서 아자미의 선택을 받은 현은 그녀와 함께 방 하나를 빌려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의 동거는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 상태’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무직자와 술집 여급이라는 경제적 위치에서 오는 불안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이들을 흔드는 불안의 원인은 ‘피의 차이’에 있다. 동거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이웃에 사는 친한 동생 미도리 커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자미는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며 현에게 걱정을 분출한다. 현은 아자미와의 공동생활을 “마치 언젠가는 무슨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을 은연중에 기다리는 기분”<sup>37)</sup>으로 지속한다.

『녹색탑』의 영민과 마찬가지로, 『아자미의 장』에서 현은 걱정적이고 열

정적인 일본인 여성과 달리 결합에 대해 머뭇거리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영민이 강사 임용 사건, 요코의 음독 사건, 수혈 사건 등을 차례로 겪으며 요코와의 애정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변신했던 것과 달리, 현의 태도는 처음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 『녹색탐』에서 영민을 부추겼던 단계적인 사건들은 조력자의 존재와 함께 내선연인의 결합을 성공으로 이끌지만, 이 이상적인 배경들은 『아자미의 장』에 이르러 내선연인의 사이를 가르는 현실적인 제반 문제들로 대체된다.

현과 아자미 주변에 산재(散在)하는 방해자 혹은 비교대상은 이들의 애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비계(飛階)로 역할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장애물로 형상화된다. 미도리 커플의 혼인 승낙<sup>38)</sup>, 아자미를 괴롭히는 술집 단골 일본인 사내,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을 극력 반대하는 현의 부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마키, 시마 교수, 감화된 하나이 등이 영민과 요코의 조력자였던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 특히 현의 아버지가 보이는 완강한 거부장적 태도는 『녹색탐』에서 영민의 부모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소회와의 만남을 건의했던 것과 완전히 대별된다.

애초에 집을 등지고 위태로운 독립을 시작한 것도 아자미와의 일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던 만큼 지금에 와서 새삼 그 반대를 꺾고 뜻을 뒤집어 놓는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는 했다. 이십년 가까이 관직에 몸을 담았던 터이기는 했지만 옛 기질로 완고하게 굳어진 아버지에게 현들의 분방한 행동은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오류의 정도를 장황

37) 이효석, 『아자미의 장』, 위의 책, p.165.

38) 그러나 미도리 커플의 혼인 승낙은 그들이 말한 '뒤틀린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미도리의 연인인 조선인 남성은 민족 간의 혼인을 반대했던 부모 앞에서 무작정 비수를 뽑아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위협'해서 허락을 받아낸다. 결국 이들의 결합도 순탄히 이루어진 적합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게 설득하면서 **혈연의 격차가 심한 혼인**은 정상이 아니라는 까닭을 타일러 말하는 것이었다.<sup>39)</sup>(강조 - 인용자)

『녹색탑』에서 요코의 외숙 다키카와를 통해 제기된 ‘피의 거리’는 『아자미의 장』에 이르러 현의 아버지를 통해 다시 제기된다. “혈연의 격차가 심한 혼인”은 정상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통해, 일제말기 당시 내선연인이 실제로 고민했던 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부모의 반대는 내선결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도 내연관계(內緣關係)에 머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인은 일정 연령에 달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혼인할 수 있지만, 조선인은 일본인과의 입부혼인이나 서양자입양이 아닌 이상 부모의 동의 없이는 혼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40)</sup>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동거로 그칠 수밖에 없는 현과 아자미의 생활은 이러한 이유로 불완전한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 아자미가 미도리의 결혼 승낙을 부러워하며 현에게 달려든 것도 이러한 법제상의 한계 때문이었다. 현의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이들은 “올바른 결혼을 해서 안정된 생활”<sup>41)</sup>을 누릴 수 없었다.

현과 아자미의 생활은 그들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매우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늘 불안정하게 부유(浮遊)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 속 ‘마늘소동’ 또한 이러한 두 연인의 상태를 드러낸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불안상태는 작품의 서두에서 현이 화단의 꽃뭉음을 보다가 새빨간 서양 영경귀의 노기를 품은 듯한 드센 모양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 올라

39) 위의 글, p.168.

40) 이정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內鮮結婚)’ 선전과 현실』, 『역사문제 연구』 제33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p.32.

41) 이효석, 앞의 글, p.167.

“난데없이 당황”하는 장면에서부터 포착된다. 두 남녀가 감지하는 ‘운명적인 불안’은 작품 전체를 감싸는 어두운 분위기로 번져나간다.

“당신이 좋아. 누구보다도 좋아. 그래서 화를 내고도 싶어지고 슬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 **어쩐지 슬픈 결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요.”<sup>42)</sup>  
(강조 - 인용자)

결국 현과 아자미의 불길한 직감은 맞아 떨어지고야 만다. 현의 아버지가 점찍어두었던 조선인 규수 여희가 현의 누이동생 손에 이끌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여희의 등장은 서로 다른 민족적 특질을 지닌 현과 아자미 사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결합 불가능성의 표지(標識)’가 그들의 눈앞에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현의 아버지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으나, 숙명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과 아자미의 ‘피의 거리’가 ‘가시화(可視化)’된 것이었다. 그 순간이 현과의 최후의 순간임을 감지한 아자미는 말없이 현을 떠난다.

아자미의 귀국 후 상황 묘사는 「은빛 송어」에서 테이코가 일본으로 떠난 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빛 송어」에서 테이코는 불현듯 일본으로 떠난 뒤 구마모토(熊本)에서 엽서를 보낸다. 이는 아자미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고향 구마모토에서 현에게 엽서를 쓰는 것과 그 모습이 겹친다. 또한 「은빛 송어」의 남성들과 「아자미의 장」의 현은 각각 테이코와 아자미가 떠난 뒤 그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려는 노력 없이, ‘아련’하고 ‘아득’하게 그들을 회상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내보인다.

---

42) 위의 글, p.171.

“무어라 해도 보상이 너무 무거워. 사랑은 굉장한 말괄량인가 봐.”

현은 응답하면서 정말로 이제부터 아자미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몇 차례 파탄을 이겨 넘어야만 할 것인가 라고 **이득한 미래**를 헤아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생각해 보았다.<sup>43)</sup>(강조-인용자)

현은 엽서를 받고도 그저 아자미와의 “이득한 미래”를 생각하는 데에 그친다. 영민과 요코가 현해탄을 가로질러 쾌속선에 몸을 실었던 것과 반대로, 현과 아자미는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때 현은 아자미와의 관계가 요원(遼遠)한 상태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분노하기보다, 그동안의 불안과 격정에서 벗어나 차라리 ‘평온’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결말을 통해 현과 아자미의 결합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녹색탑』에서 도달할 수 없었던 구성의 완결성이 이 작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현과 아자미는 ‘피’라는 태생적인 원인 때문에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들 애정 서사의 실패는 처음부터 꾸준히 감지된 불안의 징후들 속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이들의 격리(隔離) 상태는 단계적인 구조적 장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였다. 소설의 플롯으로 따지자면 전자의 구성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에서 애정의 성취도는 구성의 성취도와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 소설 내용과 구성의 미적 완결성을 추구한 이효석이 내선연애를 소재로 한 이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중 직시한 진실은 무엇인가.

『녹색탑』에서 영민과 요코의 결합의 계기는 궁극적으로 ‘피의 봉합’에

43) 위의 글, p.184.

있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자미의 장』에서 파탄의 궁극적인 원인은 전자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봉합의 파열’에 있었다. 시국적인 무게를 품은 내선연인의 애정 서사가 폐기될 때 소설의 구성은 지탱될 수 있었다. 물론 결론적으로 내용과 구성이 일치되지 않은 내선연애 소설은 이효석이 소설 창작을 통해 구현하려던 총체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았다. 일제말기의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내용과 구성의 일체를 맞출 수 있는 기회는 화초를 가꾸거나 주변 정물(靜物)을 묘사하는 등 가벼운 일상사를 담은 수필이나 짧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녹색탑』에서 내선연애라는 소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효석은 『아자미의 장』에 이르러 그 소재를 유기함으로써 구성의 완결성을 다시 회복한다. 후자의 회복은 곧 전자에서 시도하였던 내선연애라는 소재가 이효석이 그토록 혐오했던 ‘산문적 산물’이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이것이 소설 창작을 통해 총체성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구원’을 구현하고자 한 이효석의 소설관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이물적인 존재’였다는 사실 역시 증명한다.

한편 이효석의 작품들 중 구성상 파탄에 이르는 공통점을 지닌 경향적 색채의 소설과 내선연애 소설은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짧은 저술 시기와 적은 작품으로 남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각 사회주의 진영과 일제라는 사회적 압력이 이효석이라는 작가에게 동시에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끼는 대상의 무게가 상이(相異)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가 “진실 표현의 충동”<sup>44)</sup>에 있음을 밝힌 이효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으로 ‘구성’의 문제에 천착(穿鑿)했다. 두 편의

44) 이효석, 『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 - 진실의 탐구와 시의 경지』, 앞의 책(『전집 6』), p.228.

내선연애 소설 창작으로 경험한 구조적 파탄과 회복의 과정은, 그가 결핵성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양망(仰望)하던 시적 세계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던 사적(私的)이고 평탄한 일상의 작품들<sup>45)</sup>로 내려가는 계기가 된다.

## V. 나오며

지금까지 본고는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으로 대표되는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을 분석하고, 이 소설들을 탈식민주의 이론의 무계에서 벗어나 이효석이라는 작가 본래의 소설관과 세계관에 의거하여 살펴 보았다. 본고는 자못 특이한 것으로 보이는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이 사실은 그의 작품 전체와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루카치는 일찍이 운명의 문제가 형식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효석 또한 스스로의 운명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품이 ‘시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것을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는 당시의 현실과 동반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효석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은 이미 잃어버린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 구축하려고 추구하는 형식으로, 이는 이효석에게 지리멸렬한 산문적 현실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다가온다. 잃어버린 총체성을 찾는 작업으로 소설 창작을 시작한 그는, 이러한 이유로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미적 완결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45) 「일요일」(『삼천리』, 1942. 1), 「풀잎」(『춘추(春秋)』, 1942. 1), 「서한」(『조광』, 1942. 6), 「만보」(『춘추』, 1943. 7)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효석의 내선연애 소설은 현실의 제반 문제를 작품 창작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 그의 열망과 시국적 원인으로 야기된 현상인 소재의 빈곤을 계기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의 시국적인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던 내선연애라는 소재는 그 태생적인 모순성 때문에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담지한 것이었다. 이는 삶의 총체성을 소설 창작으로 구현하려 한 이효석의 소설관과 결코 합치될 수 없었다.

이효석은 「녹색탑」을 발표하기 전 「소복과 청자」와 「은빛 송어」를 발표한다. 소설 속에서 은실과 테이코는 남자 무리에게 ‘미의 현현’으로 추앙받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남성들은 그녀들을 한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작품 속에서 서술되는 ‘미의 위력’은 뒤에 발표되는 「녹색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탑」에서 조선인 남성 영민과 일본인 여성 요코는 비계(飛階)적인 사건, 조력자 등 이상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결국 ‘피의 봉합’이라는 계기를 통해 결합에 성공한다. 그러나 두 연인의 사랑이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과 달리, 반대로 그 구성은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구성상 파탄에 이른 이유는 내선연애라는 소재가 이효석의 창작관과 합치될 수 없는 ‘이물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에 있다. 피식민자 조선인과 식민자 일본인의 결합이라는 서사의 플롯은, 현실적인 제재를 들여오되 산문적인 현실의 무게는 피하고자 한 이효석의 창작 방침과 근본적으로 부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반면 「아자미의 장」에서 현과 아자미의 연애담은 「녹색탑」과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배경에 놓인다. 영민과 요코의 사랑을 성공으로 끌고 간 여러 사건들이 현과 아자미의 경우에는 오히려 둘의 사랑을 휘방 놓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파탄

으로 이어진다. 「녹색탑」을 성공담으로 이끌었던 해결책인 ‘피의 봉합’은 「아자미의 장」에 와서 실패담을 도출한 ‘봉합의 파탄’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내용상 현과 아자미가 결합의 실패를 맞이한 것과 반대로, 이 작품의 구성은 이전의 일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는 이효석이 내선연애라는 시국적 소재를 유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지러운 산문적 현실을 표현과 기교를 통한 ‘미적 무결성’으로 극복하려 한 이효석 특유의 소설관은 태생적으로 내선연애라는 시국적 소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은 내선연애 서사를 현실 제반 문제의 하나로 수용했다가 그 무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소설들과 함께 이효석의 미완성 일문장편 또한 세밀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넘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효석,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1 - 8권)』, 창미사, 2003.

『이효석문학관 가산문학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1. 9. 10.

### 2. 논문 및 단행본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심희섭 역, 『영혼과 형식』, 심설당, 1988, p.16.

\_\_\_\_\_,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4, p.62, p.68.

\_\_\_\_\_, 임성모 역, 『만철』, 산처럼, 2004.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애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글』 제41집, 우리말글학회, 2007.

오구마 에이치 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pp.306-351.

- 윤대석, 『1930년대 ‘피[血]’의 담론과 일본어 소설』, 『우리말글』 제51집, 우리말글학회, 2011, pp.289-293.
- 이규수, 『제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 - 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125집, 역사교육연구회, 2013, p.48, p.57.
- 이상욱, 『이효석 - 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3, pp.217-302.
-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 서양고전의 차용과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 이정선, 『1920 - 30년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內鮮結婚)’ 선전과 현실』, 『역사문제 연구』 제33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p.32.
- 임화 저,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p.260.
- 조운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 최주한, 『내선결혼소설의 낭만적 형식과 식민지적 무의식』, 『어문연구』 제14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2004, pp.108-109.

Abstract

Lee Hyo - seok's the Viewpoints of Novel and Material named  
Japanese - Korean Romance  
- Centering around *Noksaektap*(The Green Tower) and  
*Ajamiuijang*(The Wild Thistle's Chapter)'s Continuity -

Gong, Ju-Eun

This study analyzed Japanese - Korean romance novel, *Noksaektap*(The Green Tower) of Lee Hyo - seok and *Ajamiuijang*(The Wild Thistle's Chapter) and proved the fact that these stories, which were supposed to be unusual among his works, may be reviewed in the whole works of Lee Hyo - seok.

Lee Hyo - seok had skeptical feelings about inconsistent 'Prosaic reality'. He needed some 'form' in order to elevate the troubled world to the 'state of poetry(詩)', perfect state and he found the novel as a form of 'destiny'. The creative activity of his novel was the only way to visit the total loss in the real world of Late Japanese Forced - ruling Period, and to save himself and the world. It can be found in his feature reflecting various problems inside his works and studying these problems. Japanese - Korean romance novel appeared in this situation combined with historical reasons and his unique sense of values.

*Noksaektap*(The Green Tower) is a love story of Korean Youngmin and Japanese Yoko as the center of the narrative. "Blood issue" raised by Hanai and Dakikawa, which interferes with the combination of two lovers, was solved at once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rough "Blood sutures". However, as a contrast to the love story of two lovers that resulted in a successful end, the structure of the novel fell in a serious collapse. This is because such a scene is often found in the novels of Lee Hyo - seok in pursuit of novel's

contents and aesthetic completeness of novel structure.

The blood issue presented in the *Noksaektap*(The Green Tower) is constantly raised by their *Ajamiuijang*(The Wild Thistle's Chapter). Hyeon and Ajami's love was in a crisis with a realistic background a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is love. However, as opposed to the former, this work became to regain the likelihood of structure through the isolation of the two lovers. It was possible because Lee Hyo-seok abandoned the subject, Japanese-Korean romance which reflected the contemporary purpose inside *Ajamiuijang*(The Wild Thistle's Chapter).

Eventually the subject of Japanese-Korean romance had no option but to collapse due to Lee Hyo-seok's sense of values on novel as setting implementing the totality and salvation of human life as the best goal of the novel.

Key Word : Japanese-Korean romance, The Viewpoints of Novel, Totality, Structure, Crack, Regain, Self-salvation, Writing

공주는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kamang554@naver.com

<p>이 논문은 2016년 2월 27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p>
--